

## 2016~2017년 진보 진영 ‘부정선거 프레임’ 확산과 이탈 과정

### 1. 배경

2012년 18대 대선 이후 일부 진보층에서 투·개표 조작 의혹 제기

→ 주요근거 : 미분류표 비율, K값(미분류표 내 후보 득표 비율 차), 개표 역전 현상 등

2016년 총선에서도 일부 지역 결과를 놓고 같은 주장이 재점화.

### 2. 날짜별 주요 사건 흐름

시 기	사 건	내 용 · 영 향
2016.04.13	제20대 총선	일부 진보 유튜브·SNS에서 투·개표 조작설 재확산
2016.05경	민주당 ‘대선 불법개입 진상규명 TF’ 출범	박주민 의원 등 참여. 명목상 ‘부정선거’ 대응이었지만, 초점은 2012 대선의 국정원·군 사이버사·경찰 불법개입 규명
2016.06 ~ 2017.03	전국 순회 공청회·토론회 개최	수차례 진행, ‘투·개표 조작’이 아닌 국가기관 개입·제도 개선을 주제로 함 → 진보 지지층의 담론 재정렬 효과
2017.04.13	더 플랜 언론 시사회	김어준 총기획. 2012 대선 K값 일정·미분류표 비율 이상·개표 역전 현상 등을 근거로 ‘투표지분류기 해킹 가능성’ 제시
2017.04.20 전후	뉴스타파 반박 보도	· 제19대 대선 모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K값 패턴 재현 → 고령층 투표 행태로 설명 가능 · 국제 미분류표 비율 비교의 한계 지적 · 개표 역전 현상은 개표 순서·사전투표 반영 방식 때문
2017.05.09	제19대 대통령 선거	문재인 후보 당선. 진보 진영에서 ‘투·개표 조작’ 프레임 사실상 소멸
2017.08.04	국정원 자체 조사 발표	2012년 대선 댓글 공작·정치개입 인정 → 진보 진영 부정선거 담론의 초점이 ‘국가기관 개입’으로 완전히 전환

### 3. 핵심 통계 해석 사례 (더플랜 vs 뉴스타파)

주제	더 플랜 주장	뉴스타파 분석·반박
미분류표 비율	3.6%로 비정상적으로 높음	고령층·기표 습관, 용지·도장 차이 등 구조적 요인
K값 일정	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보다 미분류표에 1.5배 많음 → 기계 조작 흔적	19대 대선에서도 같은 패턴. 고령층 쏠림 효과로 설명 가능
개표 역전 현상	특정 시점에 표 비율이 역전	개표 순서·사전투표 반영 방식의 통계적 현상
해킹 가능성	시뮬레이션으로 가능성 입증	가능성만 시사, 실제 증거는 없음

#### 4. 종합 분석

1. 2016~2017년 초 : 진보 진영 내부에서 ‘투·개표 조작’ 담론과 ‘국가기관 개입’ 담론이 혼재.
2. 민주당 TF·공청회 활동 :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(국정원·사이버사 개입)에 집중함으로써, 지지층을 투·개표 음모론에서 점차 이탈시킴.
3. 더플랜 : ‘투·개표 조작’ 논란의 마지막 고조점.
4. 뉴스타파 반박 : 통계·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부 비판 → 진보 진영 내 자정 효과.
5. 2017 대선 승리 & 국정원 개입 인정 : 진보 진영은 부정선거 프레임을 ‘투·개표’에서 ‘국가기관 개입’으로 전환, 이후 같은 프레임은 주로 보수 진영에서 재활용.

#### 5. 결론

2016 총선 직후부터 2017 대선 직전까지,

- 민주당은 TF·공청회를 통해 근거 있는 선거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담론을 재편했고,
- 더 플랜과 뉴스타파의 논쟁은 진보 진영 내에서 투·개표 조작설의 설득력을 약화시켰습니다.
- 이 두 흐름이 결합되면서,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진보 진영은 ‘투·개표 부정’이라는 늪에서 사실상 빠져나오게 됩니다.

# 2016년 총선 부정선거 논란 해소 과정

(2016.04.13. ~ 2017.05.09.)

## 2016년 4월 13일 - 제20대 국회의원 선거

- 선거 직후 일부 진보 진영 내에서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확산
- 나꼼수 김어준이 주도적으로 의혹을 제기, 이후 다큐멘터리<더플랜> 제작 착수



## 2016년 4~12월 - 의혹 확산과 반박

- SNS · 대안 언론 중심으로 사전투표 조작설 급속 확산
- 뉴스타파(2016.12), 김어준의 주장에 대한 비판 영상 공개  
→ 통계적 해석 오류, 근거 부족 지적



## 2017년 1월 -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대응 TF 구성

- 박주민 의원 주도, 부정선거 주장 검증 및 해소 목적
- 2017년 1~4월 사이 공청회 · 토론회 수차례 개최
- 선거 통계 전문가 · 선관위 관계자 · 언론인 참석, 의혹 근거 재검토



## 통계 해석 사례 (TF 검증 내용)

- 의혹 제기 측 :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간 격차를 ‘조작 증거’로 주장
- 검증 결과 : 지역, 연령, 정당지지 성향에 따른 자연스러운 통계 현상으로 결론
- 예시 : 특정 지역 사전투표 비율이 높고 20~40대 비중이 큰 경우,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

## 2017년 5월 9일 - 제19대 대통령 선거

- 대선 과정에서 2016 총선 관련 부정선거 논란은 상당 부분 소멸
- 민주당 차원의 검증 활동과 공청회가 유권자 인식 전환에 기여